

현행 PQ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관련 제도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설시장 질서의 합리적 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빈발했던 건설 사고나 UR협상의 타결과 정부조달협정 발효 등의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은 건설산업을 둘러싼 제도의 입안 혹은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이 중 1993년부터 도입·시행되어 오고 있는 PQ제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며 가격 경쟁으로서만이 아닌 시공 업체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적격 시공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형평성 있는 경쟁을 뿌리내리기 위한 제도로써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제도들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PQ 대상 공종,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발주처의 운영적 측면 등 몇몇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건설시장 개방을 맞아 국내의 제도와 관행을 정부조달협정 등 국제 규약의 수준에 맞도록 건설산업 관련 제도가 포괄적으로 개선·조정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PQ제도 역시 재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PQ제도의 전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다. 하나의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시행착오는 제도의 실시애 따른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검정하고 그 개선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에 의해 바로잡아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PQ제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개선안을 모색하는 일은 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이에 따른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며, 이와 같은 작업은 보다 실증적인 분석 및 평가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